

조선족 청소년의 문화 접변유형과 적응간의 관계

The Relationships of Acculturation Attitudes to Adjustment
in Korean-Chinese Adolescents

박 성 연*

Park, Seong Yeon

도 현 심**

Doh, Hyun Sim

ABSTRACT

The 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Phinney, 1992) was administered to 179 Korean-Chinese mothers and their 8th and 9th grade children in the Yanbian region of China. Children also completed the Depression, Self-Esteem, and Social Competence scales. Findings were that while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mothers and their adolescent children in Integration and Marginalization, more Separation in mothers and more Assimilation in adolescents were found. Korean-Chinese adolescents who belonged to the Integration type showed higher self-esteem and social competence than those of the marginalized type. Children's self-esteem and social competence were highest when both mother and child were in the Integration type. These results support the notion that Integration reflects the most adaptive, while Marginalization is the most at-risk attitude to acculturation.

Key Words : 문화 접변(acculturation), 조선족 청소년(Korean-Chinese adolescents), 적응
(adjustment)

*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조교수

I. 서론

새로운 나라로 이주한 이민자들은 일정기간 또는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적응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적응 과정에서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기존의 가치 중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수정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서 요구되는 행동특성이나 가치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러한 과정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문화적접변(acculturation) 또는 문화적 동화(assimilation)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적접변과 문화적 동화라는 개념은 뚜렷한 구별이 없이 혼용되어 왔고, 학자에 따라서는 동화를 강조해서 주류국과의 동화 정도에 따라 문화적접변을 양극의 단일차원으로 보기도 하나, 사실상 두 용어는 서로 구별되는 다른 과정으로 인식된다. 즉, 문화적접변이란 새로운 문화의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이주국의 어떤 행동양식을 채택(adopt)하는 과정이며(Lonner & Berry, 1989), 문화적 동화란 몇 단계를 거치는 하지만 결국에는 본국의 가치관이나 소속감 등을 버리고 새로운 이주국의 가치관이나 행동특성으로 대치되는 과정이다(Patel, Power, & Bhavnagri, 1996).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이주민의 적응을 문화적 동화 정도에 따라 양극의 단일차원으로 이해하는 대신, 주류국과 자기민족의 양쪽 문화 각각을 어느 정도로 수용하는가 하는 이차원적인 입장에서 문화적접변 유형에 따른 차이에 관심을 두는 경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적응이란 주류국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따라 끊임없이 양쪽의 사회의 요구를 선택하고 수정하는 통합적 과정이다(Buriel, 1993; Partel et al., 1996).

이민자들의 적응과정에 대해 이차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인 Berry(1984)

는 1) 이민자들이 자신의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이나 특성을 지키는 것을 중요시하는가?와 2) 이들이 주류 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 동화(assimilation), 분리(separation), 통합(integration) 및 주변화(marginalization)의 4가지 문화적접변 유형을 제시하였다. Berry에 의하면, 첫째, 동화는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려 하지 않고, 주류 사회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태도로 정의된다. 둘째, 분리는 주류 사회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자신의 문화나 민족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할 때 일어나는 태도이다. 셋째, 통합은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계속 지키는 한편, 주류 사회와의 상호작용에도 관심을 보이며 융합하려는 태도이다. 넷째, 주변화는 주류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도 하지 않고 자기민족의 정체성이나 문화를 지키려고도 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태도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Falbo, Doh, Lee와 Park (2000)은 동화, 분리, 통합 및 주변화 각각을 동화적(assimilated), 민족중심적(ethnocentric), 양문화적(bicultural) 및 탈문화적(decultural) 문화적접변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한편, 문화적접변 양상은 인종, 이민가족의 문화 및 상황적 변인, 주류국의 사회 구조적 특성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Aycan와 Kanungo(1998)의 고찰에 의하면, 불란서계 캐나다인들은 Berry가 주장한 통합 유형을 지향하는 한편, 분리와 동화 양상도 상당수 받아들이나, 한국계 캐나다인이나 인도계 캐나다인은 대다수가 통합만을 지향함으로써 민족간에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이와 유사하게, 타이완과 미국에 이주한 중국계, 그리고 미국인간에 아

동양육을 비교한 Lin과 Fu(1990)은 미국에 이민 온 중국인들이 양육행동에서 유교문화에서의 전통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동시에 미국 문화에도 동화하고 있어, 통합 또는 양문화적(bicultural) 사회화를 시킨다고 결론짓고 있다. 결국, 인종에 따른 문화접변 양상의 차이는 유럽계의 경우 종교, 사회, 언어, 풍습, 가족관계가 미국과 유사한 반면, 아시아계는 미국과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중국 연변지역에 이주한 조선족과 미국에 이주한 대학생을 비교한 Falbo 등(2000)에 의하면, 인종뿐 아니라 이주 역사나 사회적 배경에 따라라도 문화접변 태도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시사되고 있다. 즉, 미국에 이주한 대학생의 경우는 양문화적인 지향, 즉 통합적 태도가 두드러지는 반면에, 중국 연변에 사는 조선족은 상당수가 민족 정체성은 낮고 주류국 구성원들과의 관계는 높은 동화나, 민족 정체성도 낮고 주류국 구성원과의 관계도 낮은 주변화 태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Falbo 등(2000)은 미국의 경우 이민에 대해 포용적이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인정해 주는 데 반해, 중국은 이민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이고 이주자들에게 소수민족으로서의 분리나 외국인으로서의 위치를 강조하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주류국과 이민자의 인종적·문화적 유사성 혹은 차별성에 따라 문화접변의 유형은 다르게 나타나며, 유럽계 미국 이민자보다 아시아계 미국 이민자에게 있어 문화적 불안정성(이중성)이나 갈등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연구 결과들은 문화접변태도와 이민자의 적응간의 관계가 인종이나 문화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 이주한 인도인의 경우는 다른 민족과는 달리 교육수준도

높고 영어를 잘하며 전문직에 종사하는 등 미국문화에 잘 동화하는 반면, 인도의 전통적인 관습이나 가치관을 강하게 지켜가는 독특한 이민 문화를 지니고 있어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Martin & Widgren, 1996; Sharda, 1990). 동양계 미국인의 불안정성은 시카고 지역 한국 이민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즉, Hurh와 Kim(1984)에 의하면, 한국 이민자들은 전통적 문화 중 어떤 특정한 측면은 버리려고 하는 한편, 어떤 측면은 민족유산으로 다음 세대로까지 보존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어 강한 불안정성 또는 이중성 및 주류사회와의 유리 등 여러 가지 적응의 문제점을 나타낸다.

특히, 발달적 측면에서 볼 때, 자아정체감 형성 등으로 혼란기에 있는 청소년들, 특히 이민 가족의 청소년은 부모나 자녀의 갈등이 더욱 심각해서(Chui, Feldman, & Rosenthal, 1992; Scott & Scott, 1989) 적응상의 어려움이 크다. 자아정체감 형성과 관련한 어려움 외에도, 이민 온 청소년들이 겪는 갈등은 부모세대와 자녀 세대간의 문화접변 과정이나 유형의 차이에 기인하기도 한다. 예컨대, 민족 문화와 주류국 문화간의 차이나, 양국의 문화에 대한 집착이나 고수 또는 수용태도에서의 부모-자녀간 차이는 청소년 자녀가 경험하는 갈등의 근원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와 자녀간의 문화접변 태도가 서로 다르며, 그에 따라 청소년의 적응도 달라질 것이라는 가정은 서구를 중심으로 한 몇몇 연구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Berry(1984)의 이론에 근거하여 캐나다에 이주해온 인도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접변 유형과 사회화 신념 및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를 연구한 Aycan과 Kanungo(1998)은

부모의 문화적 접변은 통합과 분리 순으로, 자녀의 경우는 통합과 동화의 순으로 나타나 문화적 접변에서의 세대 차를 발견하였다. 즉, 부모는 모국에서 자라면서 사회화되어 사회적 관습과 종교적 전통을 지킴으로써 그들의 문화를 유지하려고 하고, 자녀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방식에 적응함으로써, 또래로부터의 수용을 추구하게 되어 부모와 다른 문화적 접변 태도를 나타내게 된다. 이와는 달리, 노르웨이에 이주한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Sam(1995)은 부모의 문화적 접변 유형과 청소년의 문화적 접변 유형은 유의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부모와 자녀간의 문화적 접변 유형의 차이나 유사성이 중요한 주제가 되는 이유는 이러한 유사성과 차이가 자녀의 행동적, 훈육적 문제와 연관이 있기(Aycan & Kanungo, 1998)때문이다. 예를 들면, 캐나다에 이주해온 인도인 가족의 경우 부모와 자녀 모두 통합을 선호할 경우, 아동의 행동 문제가 적게 나타난 반면, 부모가 분리를 선호할 경우, 자녀의 학교 관련 활동에 참여가 부족하였다. 또한 부모가 주류국 문화를 더 수용하고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 유지에 관심이 적은 동화 태도를 보이는 반면, 청소년은 민족적 정체성을 고수하고 주류사회를 멀리하는 분리태도를 보일 때, 정체성 문제나 행동적, 훈육적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였다(Aycan & Kanungo, 1998). 이러한 문화적 접변 유형별 연구 대신 민족정체성과 주류 사회와의 관계 각각을 연구(박성연, 김미경, 도현심, 2000)한 바에 의하면, 어머니가 민족 정체성을 유지할 때 또는, 주류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가질 때 아동은 우울감이 적고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한편, 부모-자녀간의 문화적 접변 양상의 유사성이 훈육과정에서 마찰을 가져와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 위의 연구 외

에도, 청소년 자신의 문화적 접변 유형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즉, Phinney(1989, 1990, 1992)를 비롯한 몇몇 연구(Cross, 1991; Helms, 1990)에서 청소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민족성이나 인종적 정체감을 가질수록 다른 집단을 더 잘 수용한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자신의 문화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다른 집단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는 다문화적 가설을(Berry, 1984; Berry, Kalin, & Taylor, 1977; Lambert, Mermigis, & Taylor, 1986; Phinney, Ferguson, & Tate, 1997)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민족 정체성과 주류문화와의 관계 유지의 두 차원을 동시에 고려한 Berry의 문화적 접변 유형은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리라 가정되며, 특히 양쪽의 문화를 다 수용하는 통합적인 유형이 가장 적응적일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나, 문화적 접변과 적응간의 관계는 연구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즉, 문화적 동화와 적응간에 긍정적인 관계(Salgado de Snyder, 1987)가 나타나거나 하면, 부정적인 관계가 보고되기도 하고(Sorenson & Golding, 1988), 적절한 수준의 동화가 있을 때만 적응과 긍정적으로 관련된다는 곡선적 관계(Berry, Kim, Minde, & Mok, 1987)가 보고되기도 한다. 이처럼 모순된 결과는 여러 가지 원인에 기인하는데, 적응에 대한 개념이 민족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연구에 따라 문화의식의 지표, 또는 모델이 다르게 측정되기 때문이다(Nguyen, Messe & Stollak, 1999). 예를 들어, 언어사용이나 거주기간 등 한 가지 지표를 근거로 연구한다면, 문화적 접변을 단일 차원 또는 양극단 차원으로 이해하여 어떤 한 민족에 대한 참여나 몰입이 높은 자아존중감과 관계된다면, 다른 민족과

의 참여나 몰입은 낮은 자아개념과 관련된다고 가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단일 차원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기준개념과의 동시성, 독립성, 또는 다중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인식되어, 최근에는 한 문화에의 참여가 반드시 다른 문화에의 비참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이차원적인 입장(Berry, 1980, 1991; Phinney, 1990)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Sanchez와 Fernandez(1993)가 보고하였듯이 각 문화와의 동일시는 각각 다른 측면의 적응과 관련될 수 있다.

미국에 이주한 베트남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국문화에의 적극적인 참여(IUS)정도와 베트남 문화에의 적극적 참여정도(IVN)에 따른 적응상 차이를 연구한 Nguyen 등(1999)의 결과는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해 준다. 즉, 각 문화와의 동일시는 각각 다른 측면의 적응과 관련되어, IUS청소년은 우울증을 겪지 않고, 자아 존중감이나 학교 성적이 높아 적응이 잘되는 한편, IVN의 경우는 가족관계는 좋은 반면, 학교 성적은 부진하고, 여러 가지 증상과 관련된 괴로움을 겪었다. 미국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청소년의 적응이 높다는 이러한 결과는 Nguyen 등이 주장하였듯이 발달적으로 보아 청소년들에게는 가족의 영향보다는 친구나 학교의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민족 정체성과 주류국과의 관계 두 차원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차원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상의 고찰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접변 양상은 사회구조적 특성이나 민족적 배경에 따라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가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중에서도 한국 이민 가족의 연구는 매우 드물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이민 가족은 민족 고유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한편, 어떤 측면에서는 선택적으로 주류사회에 적응하는 양문화적인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민족의 경우는 비교적 동화의 압력이 크다는 점(Sam, 1995)을 고려 할 때, 특히 이민 역사도 오래되었고, 이민의 역사적 배경이나 이민 정책도 서방국가와는 다른, 중국에 이주한 조선족의 문화접변 양상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인정해 주는 미국에 이주한 한국인들과는 다를 것으로 가정된다. 더욱이 연변 조선족은 한민족이지만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한편, 민족적 자부심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세대 변화에 따라 젊은 층에서는 점차 민족의식이 희박해 지고 있어(노치영, 2000; 량옥금, 2001), 연변 조선족 부모-자녀간에는 문화접변으로 인한 갈등 및 이로 인한 청소년의 적응문제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문화 접변태도와 적응에 대한 미국 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Berry의 이차원적인 문화 접변태도가 이민자의 적응을 설명하는 데 더 적절하며(Aycan & Kanungo, 1998; Nguyen et al., 1999), 그 중에서도 통합적인 유형이 가장 적응적일 것으로 가정되나, 이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비밀관적이다. 더욱이 어머니의 문화접변은 직접적으로 또는 양육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박성연 등, 2000), 부모와 자녀간의 문화 접변 태도의 유사성이나 조합이 부모나 청소년의 갈등의 원인이 되어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시사되나, 이를 규명한 연구는 Aycan과 Kanungo(1998)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는 연변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청소년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Berry의 이차원적 유형을 이론적 틀로 하여 어머니 및 청소년 자신의 문화접변 유형을 파악

하고, 이들의 문화접변 유형과 어머니와 청소년의 문화접변 유형의 조합이 청소년의 적응과 각각 어떠한 방식으로 관련되는가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 및 청소년의 문화접변 유형(동화, 분리, 통합 및 주변화)의 분포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 및 청소년의 문화접변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적응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문화접변 유형과 청소년의 문화접변 유형의 조합에 따라 청소년의 적응에는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중국의 연변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2~3학년 남녀 청소년(115명의 남아와 164명의 여아)과 그들의 어머니 279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청소년은 13~19세의 분포를 이루며(평균연령: 17.5세), 출생순위는 첫째가 200명(71.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구대상 어머니의 연령분포를 보면 31~60세에 이르며, 41~50세가 180명(64.7%)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연령은 42.2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168명(60.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초등학교 졸업 이하는 70명(25.1%)이었으며, 대학교 졸업 이상도 39명(14.0%)을 차지하였다. 또한 응답한 어머니들의 36.2%가 노동직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가정주부(22.2%)가 많았다. 한편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500~2000원 사이에 과반수 이상이 분포되어 연변지역 기준에 비추어(노치영, 2000) 볼 때, 본 연구대상자는 중류층으로 볼 수 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어머니용과 청소년용 질문지로 구성되며, 어머니용은 문화접변 척도가, 청소년용은 문화접변 척도와 청소년의 적응 척도가 포함된다. 각각의 척도는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에 이르는 Likert식 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각 특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 문화접변 척도

문화접변 척도는 Phinney(1992)의 MEIM(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MEIM은 정체성, 소속감, 민족고유 행동 및 주류사회와의 관계유지의 4개의 하위 척도를 포함하는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를 위해서는 문화적으로 적절치 않은 1문항을 제외한 19개 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19문항 중 신뢰도를 낮추는 3문항을 제외한 총 16개의 문항들이 최종적인 자료분석에서 사용되었다.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해서는 Phinney(1992)의 제안에 따라 정체성, 소속감, 민족고유 행동의 세 가지 하위 척도를

모두 합하여 '민족 정체성'이라는 하위 척도로 명명하였다. 따라서 문화접변 척도는 '민족 정체성' 하위 척도와 '주류사회와의 관계유지' 하위 척도로 구분되어 분석되었다. 민족 정체성 하위 척도에는 '나는 조선족의 역사, 전통, 관습 등에 대해 좀더 많이 일려고 애쓴다', '나는 조선족으로 구성된 조직이나 사회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조선족이라는 나의 민족 배경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 등의 문항들이 포함된다. 또한 주류사회와의 관계유지 하위 척도에는 '나는 한족과 알고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 '때때로 나는 서로 다른 민족간에 교제나 왕래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종종 한족과 시간을 보낸다' 등의 문항들이 포함된다. 어머니용과 청소년용 척도의 민족 정체성 하위 척도와 주류사회와의 관계유지 하위 척도의 신뢰도는 어머니용이 각각 .84, .72 이고 청소년용이 각각 .82, .72로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2) 청소년의 적응 척도

청소년의 적응은 우울감,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능력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우울감 척도는 20문항으로 구성된 Radloff(1977)의 CES-D(The Center for Epidemic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에서는, 척도의 신뢰도를 낮추는 3문항을 제외하고 총 17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문항들의 Cronbach's α 계수는 .77이었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10 문항으로 구성된 Rosenberg(1965)의 Self-Esteem Scale을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10문항 중 신뢰도를 낮추는 1문항을 제외한 9문항을 분석

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에 의해 산출된 신뢰도는 .70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송나리(1992)의 사회적 능력 평가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16문항 중 신뢰도를 낮추는 2문항을 제외한 14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7$ 이었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질문지 조사를 위해, 연구보조원이 연변지역의 두 개 조선족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청소년용 질문지는 담임선생님을 통해 그 자리에서 응답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어머니용 질문지는 아동편으로 어머니에게 전달된 후 응답된 질문지를 3~7일 정도의 기간에 걸쳐 회수하였다. 배부된 300부의 질문지 가운데 21부를 제외한 279부가 회수되어(회수율: 93%) 총 27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PC 9.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각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에 의해 내적 일치도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라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간의 문화접변 유형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χ^2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문화접변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적응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문화접변 유형과 청소년의 문화접변 유형의 조합에 따른 청소년의 적응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어머니의 문화적변 유형과 청소년의 문화적변 유형간의 차이

문화적변의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Berry(1984)와 Falbo 등(2000)에 근거하여 민족정체성과 주류사회와의 관계 유지의 두 가지 하위요인 각각의 중앙치를 중심으로 하여 ‘통합’(민족정체성과 주류사회와의 관계 유지가 모두 높은 경우), ‘분리’(민족 정체성은 높고 주류사회와의 관계는 낮은 경우), ‘동화’(민족 정체성은 낮고 주류사회와의 관계는 높은 경우), 및 ‘주변화’(민족정체성과 주류사회와의 관계 유지가 모두 낮은 경우)의 네 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 모두 네 가지 유형 중 통합형이 약 35%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세 유형은 비교적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다(<표 1>). 이러한 분포 경향은 χ^2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통합’형은 어머니와 청소년 양 집단에서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으나, 민족정체성이 높고 주류사회와의 관계 유지가 낮은 경우인 ‘분리’형은 청소년에 비해 어머니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한편, 민족정체성이 낮고 주류사회와

의 관계 유지가 높은 ‘동화’형의 경우는 어머니에 비해 청소년의 경우가 더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민족정체성과 주류사회와의 관계 유지 모두가 낮은 경우인 ‘주변화형’은 어머니와 청소년 양 집단이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2. 어머니 및 청소년의 문화적변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적응

청소년이 지각한 자아존중감, 사회적 능력, 우울감을 지표로 청소년의 적응 점수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문화적변 유형에 따라서는 모든 지표에서 청소년의 적응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청소년 자신의 문화적변의 유형에 따라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능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통합형일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변화형일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나(<표 2>), 민족정체성과 주류사회와의 관계 유지 모두 높을 때 자아존중감이 높은 반면, 둘 다 낮을 때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의 사회적 능력의 경우는, 통합형과 분리형의 경우가 동화형과 주변화형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표 3>). 즉, 청소년들은 민족정체성과 주류사회와의 관계 유지 모두가 높거나 혹은 민족정체성은 높지만 주류사회와의 관계 유지가 낮을 때 더 높은 사회적 능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높은 민족 정체성은 특히 조선족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우울감은 문화적변 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 어머니와 청소년의 문화적변 유형의 분포

문화적변 유형	어머니		청소년	
	N	%	N	%
통합형	97	34.8	100	35.8
분리형	55	19.7	37	13.3
동화형	61	21.9	80	28.7
주변화형	66	23.7	62	22.2
계	279	100.0	279	100.0

$\chi^2=14.55, df=3, p<.01$

<표 2> 청소년의 문화접변 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N	M	SD	Duncan 검증
통합형	100	3.09	.44	A
분리형	37	3.07	.40	AB
동화형	80	2.91	.45	AB
주변화형	60	2.83	.51	B
F(3, 273)=5.26**				

**p<.01

<표 3> 청소년의 문화접변 유형에 따른 사회적 능력

	N	M	SD	Duncan 검증
통합형	100	3.22	.38	A
분리형	37	3.28	.34	A
동화형	80	3.04	.36	B
주변화형	60	3.00	.38	B
F(3, 273)=8.41***				

***p<.001

3. 어머니의 문화접변 유형과 청소년의 문화 접변 유형의 조합에 따른 청소년의 적응

어머니의 문화접변 유형과 청소년의 문화접변 유형간의 조합에 따라 청소년의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Aycan & Kanungo, 1998) 결과를 근거로, 청소년의 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조합들간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청소년의 적응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합, 즉 어머니와 자

녀 모두가 통합형인 집단(통합형-통합형)과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과 관련이 있는 조합, 즉 어머니와 청소년의 문화접변 유형이 각각 분리형과 동화형인 집단(분리형-동화형)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279쌍의 가운데 전자는 41쌍이, 후자는 15쌍이 포함되었으며, 어머니와 청소년의 문화접변 유형의 조합에 따른 청소년의 우울감,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능력에서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통합형-통합형은 분리형-동화형의 경우에 비해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능력이 더 높게 나타나, 어머니와 청소년 모두 통합형일 때 청소년은 적응을 보다 잘 하였다. 우울감의 경우도 미약하나마(p<.10)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통합형-통합형의 조합이 분리형-동화형의 경우보다 우울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4> 어머니와 청소년의 문화접변 유형의 조합에 따른 청소년의 적응

	통합형-통합형 (N=41)		분리형-동화형 (N=15)		t
	M	SD	M	SD	
우울감	1.53	.35	1.73	.37	-1.85 ⁺
자아 존중감	3.21	.38	2.84	.39	3.18**
사회적 능력	3.27	.34	3.04	.42	2.14*

⁺p<.10 *p<.05 **p<.01

IV. 논 의

본 연구는 연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어머니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화접변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였다.

그 외, 부모와 자녀간의 문화접변 유형의 차이와 문화접변 유형의 부모-자녀간 조합에 따른 자녀의 적응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문제별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문화적변과 청소년의 문화적변 유형의 분포

어머니의 문화적변 유형과 자녀의 문화적변 유형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와 청소년 모두 통합형이 약 35%로 전체 대상자의 1/3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세 유형은 20% 내외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양 집단의 문화적변 유형은 전반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통합형과 주변화형의 경우는 어머니와 청소년이 서로 비슷한 분포를 보인 반면, 분리형과 동화형의 경우는 어머니와 청소년이 서로 다른 분포를 나타냈다. 즉, 분리형의 경우는 청소년에 비해 어머니가, 그리고 동화형은 어머니에 비해 청소년이 더 높은 분포를 보였다. 또한 각 유형별 분포의 순서는, 청소년 자녀의 경우, 통합형 > 동화형의 순으로 나타나고, 어머니의 경우는 통합형 > 주변화의 순으로 나타나, 세대간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캐나다에 이주해온 인도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한 Aycan과 Kanungo(1998)의 결과 중 청소년의 경우는 같으나, 어머니의 경우 통합형에 이어 분리형이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연변 조선족 어머니들의 경우,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도 미약하면서 동시에 주류사회인 漢족들과도 활발하게 교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음(23.7%)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간발달에 있어서 소속감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조선족 어머니들의 건강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주류사회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인다는

선행연구(박성연 등, 2000)에 비추어 볼 때, 주변화 형 어머니가 많다는 것은 자녀의 적응에도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청소년의 경우 통합형이 약 36%인 반면 동화형이 약 29%에 이르며, 주변화형도 22% 정도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통합형이 압도적(56%)으로 많고 나머지 세 유형이 10% 내외인 미국 한인 이민가족 대학생 결과(Falbo et al., 2000)와는 다른 것으로, 분리를 강조하는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의 경우, 이민에 대해 포용적이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두 가지 문화를 다 수용하는 통합형이 지배적인데 반해, 중국은 이민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이고 이주자들에게 소수민족으로서의 분리나 외국인으로서의 위치를 강조하기 때문에 통합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연변조선족 청소년들의 경우, 오히려 중국 문화에 동화되거나 그 어느 쪽도 아닌 주변화 형이 미국 이민가족의 젊은이들 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더욱이 어머니에 비해 청소년의 경우, 동화형이 높고(각각 약 22%, 29%) 분리형이 낮게(각각 약 20%, 13%)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연변 조선족의 현 사회 문제 중 가장 큰 위기로 지적되고 있는 민족 정체성 약화의 문제(량옥금, 2001)를 재 확인시켜 주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어머니와 청소년의 문화적변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적응

청소년의 적응은 어머니의 문화적변 유형과 달리 청소년 자신의 문화적변 유형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 통합형에 속하는 청소년

들은 주변화형의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자아존중감을, 그리고 통합형과 분리형은 동화형과 주변화형 보다 높은 사회적 능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민족정체성과 주류사회와의 관계유지가 모두 높을 때 청소년들은 스스로를 보다 더 가치롭게 여기며 사회적으로도 보다 잘 적응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통합형뿐만 아니라 분리형 역시 다른 두 가지 유형에 비해 보다 높은 사회적 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은 민족 정체성이 높을 때 특히 사회적으로 보다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에 이민한 베트남인들의 경우 미국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이 베트남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집단보다 모든 적응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던 Nguyen 등(1999)의 연구결과와는 다르지만, 양쪽의 문화를 다 수용하는 통합적인 유형이 가장 적응적일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정은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자아정체감 형성의 문제가 증시되며 또래와의 관계가 주를 차지하는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과도 적극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보다 원활한 사회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민족성이나 인종적 정체감을 가질수록 다른 집단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는 주장(Berry, 1984; Lambert, Mermigis, & Taylor, 1986; Phinney 1989, 1992)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청소년의 적응이 어머니의 문화접변 유형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 자신의 문화접변 유형과 더불어, 어머니와 자녀간의 문화 접변유형의 일치 여부가

청소년 적응에 중요한 관건임을 시사한다.

어머니와 청소년의 문화접변 유형의 조합에 따른 청소년의 적응

어머니의 문화접변 유형과 청소년의 문화접변 유형간의 조합에 따라 청소년의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통합형-통합형인 경우는 분리형-동화형의 경우보다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능력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자녀 모두 통합형일 경우 아동의 행동문제가 적은 것으로 보고한 Aycan과 Kanungo(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부모와 자녀간의 태도에 있어서의 일치 혹은 불일치가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분리형-동화형의 경우는, 부모는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채 높은 민족적 정체성을 가진 반면, 자녀는 민족적 정체성은 낮으면서 주류사회에 동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자녀간의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부모-자녀간 갈등 상황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하기가 쉽기 때문에, 통합형-통합형의 경우에 비해 자녀는 상대적으로 낮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능력을 갖게 되리라 해석된다. 유사한 맥락에서, 청소년의 우울감 역시 양 집단간에 미약하나마 유의한 차이($p < .10$)를 나타냈다.

종합해 보면, 연변 조선족의 문화접변 태도는 통합형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다른 세 가지 유형이 각각 20%내외로 분포되어 있기는 하지만, 통합형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난 서구 이민 가족의 연구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합형이 적고 동화형이나 주변화형이 많은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변 조선족의 문화접변 양상이 서구와는 다른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문화 접변태도는 주류국의 사회적 여건이나 이주 역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문화 접변 태도가 통합형일 때, 그리고 부모-자녀간에 문화접변 유형이 일치할 경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나 사회적 능력이 높아 적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민족 정체성이 높은 집단인 통합형과 분리형의 청소년이 높은 사회적 능력을 나타낸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높은 민족정체성을 갖는 것이 연변 조선족 청소년들의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요소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인구의 과반수가 조선족으로 구성된 조선족 자치구인 연변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러한 결론을 중국에 사는 조선족 전체에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를 요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중국의 여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조선족으로 확대함으로써 본 연구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주 역사나 이민정책이 서구와 다른, 중국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민족 정체성과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두 축으로 한 문화접변 유형을 통해 연변 조선족 청소년의 적응을 연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노치영(2000). 통일한국을 대비한 연변의 역할. 인간 생활환경 연구소 특별세미나 발표 자료,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 대학, 인간생활환경 연구소.
- 량옥금(2001). 연변 조선족의 사회문제 : 인구감소 현황 및 그 과제. 인간생활환경연구소 이화 창립 115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pp. 3-20.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 대학, 인간생활환경 연구소.
- 박성연, 김미경, 도현심(2000). 연변 조선족 어머니의 문화접변 및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적응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8(12), 159-175.
- 송나리(1992). 외동이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 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ycan, Z. & Kanungo, R. N.(1998). Impact of acculturation on socialization beliefs and behavioral occurrences among Indo-Canadian Immigrant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Calgary, Autumn 1998.
- Berry, W.(1980).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In A. M. Padilla (Ed.), *Acculturation : Theory, Models and Some New Findings*. Boulder, Co : Westview.
- Berry, W.(1984). Cultural relations in plural societies : Alternatives to segregation and their socio-psychological Implications. In N. Meller & M. Brewer(Eds.), *Groups in Contact : The Psychology of Desegregation* (pp. 11-29). Orlando, FL : Academic Press.
- Berry, W.(1991). Refugee adaptation in settlement countries : An overview with and emphasis on primary prevention. In F. Ahearn & J. Athey (Eds.), *Refugee Children : Theory, Research, and Services*(pp. 20-38). Baltimore :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Berry, W., Kalin, R., & Taylor, D.(1977). *Multicul-*

- turalism and Ethnic Attitudes in Canada*. Ottawa : Supply and Service-Canada.
- Berry, W., Kim, U., Minde, T., & Mok, D.(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 491-511.
- Buriel, R.(1993). Child-rearing orientations in Mexican American families : The influence of generation and sociocultural fact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987-1000.
- Chui, L., Feldman, S., & Rosenthal, A.(1992). The influence of immigration on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distress in Chinese families residing in two Western nation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 205-239.
- Cross, W.(1991). *Shades of Black : Diversity in African-American identity*. Philadelphia : Temple University Press.
- Falbo, T., Doh, H., Lee, R., & Park, S.(2000). The adaptation of Korean immigrants to China and the U.S. 2000 Annual Conference of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in Los Angeles, CA.
- Helms, J.(1990). *Black and White Racial Identity :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 Greenwood.
- Hurh, M. & Kim, K. C.(1984). *Korean Immigrants in America : A Structural Analysis of Ethnic Confinement and Adaptive Adaptation*. Cranbury, NJ : Fairleigh Dickson University Press.
- Lambert, W., Mermigis, L., & Taylor, D.(1986). Greek Canadians' attitudes toward own group and other Canadian ethnic groups : A test of the multiculturalism hypothesi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18, 35-51.
- Lin, C. & Fu, R.(1990). A comparison of child-rearing practices among Chinese, immigrant Chinese, and Caucasian-American Parents. *Child Development*, 61, 429-433.
- Lonner, W., & Berry, J.(1989). *Field Methods in Cross-Cultural Research*. Beverly Hills, CA : Sage.
- Martin, P., & Widgren, J.(1996). International migration : A global challenge. *Population Bulletin*, 51, 2-48.
- Nguyen, H., Messe, A., & Stollak, E.(1999). Toward a more complex understanding of acculturation and adjustment : Cultural involvements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in Vietnamese youth.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0, 5-31.
- Patel, N., Power, G., & Bhavnagri, P.(1996). Socialization values and practices of Indian immigrant parents : Correlates of modernity and acculturation. *Child Development*, 67, 302-313.
- Phinney, S.(1989). Stages of ethnic identity development in minority group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9, 34-49.
- Phinney, S.(1990). Ethnic identity in adolescents and adults : A review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08, 499-514.
- Phinney, S.(1992). The 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 : A new scale for use with diverse group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7, 156-176.
- Phinney, S., Ferguson, S. & Tate, D.(1997). Intergroup attitudes among ethnic minority adolescents : A causal model. *Child Development*, 68, 955-969.
- Radloff, L. S(1977). A CES-D scale :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m, L.(1995). Acculturation attitudes among young immigrants as a function of perceived parental attitudes toward cultural chang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5, 238-258.
- Salgado de Snyder, N.(1987). Factors associated with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 ogy among married Mexican immigrant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1, 475-488.
- Sanchez, J., & Fernandez, D.(1993). Acculturative stress among Hispanics : A bidimensional model of ethnic identifica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3, 654-658.
- Scott, A., & Scott, R.(1989). *Adaptations of Immigrant : Individual Differences and Determinants*. Oxford, England : Pergamon Press.
- Sharda, D.(1990). Marriage markets and matrimonial : Matchmaking among Asian Indians of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of the Family*, 20, 21-29.
- Sorenson, B., & Golding, M.(1988). Suicide ideation and attempts in Hispanics and non-Hispanic Whites : Demographic and psychiatric disorder issues.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18, 205-218.